

## 劉基의 「感時述事十首」에 보이는 사회비판의식 고찰

신민야\*

### 【목 차】

1. 들어가며
2. 劉基와 「感時述事十首」
3. 劉基의 「感時述事十首」에 보이는 사회비판의식
4. 나오며

### 【초록】

劉基(1311~1375)는 원말명초의 정치가, 군사가, 사상가이자 문학가다. 유기는 원과 명의 두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살면서 그의 삶과 문학 역시 그 영향을 깊이 받았다. 유기는 1300여수의 시를 남겼으며, 그의 시는 대체로 주원장에게 초빙된 다음해인 1360년(元 至正 20년)을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시의 경우 사회비판과 풍유, 교화를 중시했다면 후기에 창작한 시는 개인감정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感時述事十首」는 유기가 48세였던 1358년에 창작한 연작시로 사회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전기시의 주요 경향을 잘 보여준다. 元 왕조 치하에서 삶의 대부분을 살았던 유기는 원말의 혼란한 상황과 백성들이 겪은 고통을 목도하고 이를 「感時述事十首」에 생생하게 담았다. 유기는 「感時述事十首」에서 원말의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등의 여러 사회폐단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에 마음 아파했다. 이는 宋詩의 ‘의론으로써 시를 쓰는(以議論爲詩)’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은 세상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經世致用의 유가적 문학관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유기, 감시술사십수, 풍유시, 원말, 사회비판의식

\* 청운대학교 글로벌학부 중국학전공 조교수 (shinminya@hanmail.net)

## 1. 들어가며

劉基(1311~1375)는 원말명초의 정치가, 군사가, 사상가이자 문학가다. 자는 伯溫이며 浙江 青田(지금의 浙江 文成) 사람이다. 23세였던 1333년(元 至順 4년)에 진사가 되었다. 經史에 정통했으며, 천문과 병법에도 뛰어났다. 유기는 원나라와 명나라 두 왕조에서 모두 벼슬을 했다. 50세였던 1360년(元 至正 20년)에 주원장에게 초빙되어 명나라 건국에 큰 역할을 한 개국공신이 되었다. 명나라 건국 후인 1370년(明 洪武 3년)에 성의백(誠意伯)으로 봉해져 ‘유성의(劉誠意)’라고도 불렸다.

유기는 원과 명의 두 왕조가 교체되는 시기를 살면서 그의 삶과 문학 역시 그 영향을 깊이 받았다. 유기는 원왕조의 진사가 된 후 네 번 출사해서 네 번 사직했다. 유기 시문을 보면 그가 원왕조에 대해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으로부터 점차 회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실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유기는 원나라를 버리고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하는 것을 돕게 된다.

유기의 시는 대체로 그가 50세였던 1360년(元 至正 20년)을 기점으로 전후기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유기는 한 해 전인 1359년에 宋濂과 함께 주원장의 謀臣으로 초빙되었다. 주원장에게 초빙되기 전인 1360년 이전에 창작된 유기의 전기시 중 역대로 높이 평가받는 시가는 원말의 전란에 대해 쓴 작품들인데, 이 시들은 현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고 주로 걱정적이고 비장한 풍격을 가졌다.<sup>2)</sup> 그러나 1360년 이후에 창작된 시는 전기시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 전기시의 경우 현실비판과 풍유, 교화를 중시했다면 후기에 창작한 시는 개인감정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주원장이 왕권강화를 위해 공포정치를 펼치고 이로 인해 유기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축된 것과도 관련이 깊다.<sup>3)</sup>

- 
- 1)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한 것은 1368년이지만 유기가 원나라를 버리고 주원장을 따르기로 한 것은 이미 그 이전인 1359년 즈음이었다. 따라서 유기 시에서 내용과 풍격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준점은 명 건국 이전인 1360년으로 볼 수 있다.
  - 2) 유기가 원말에 창작한 시가는 대체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원말의 전란을 묘사한 작품들로 이 시들에서 유기는 나라와 백성이 겪는 고통에 대해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雄建하면서 悲壯한 시풍을 가지며, 유기가 원말에 창작한 시가 중 가장 사상적인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는 친구들과 唱和를 하거나 그림에 쓴 제화시들이다. 이 부류의 시는 雄奇한 시풍을 가지며 奇特하고 生僻한 글자를 사용하기 좋아했으며 조탁의 흔적이 없다. 사상적인 가치는 낮지만 유기 시가 중 예술가치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 번째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시가다. 이 부류의 시가는 유기가 네 번째 사직하고 은거한 뒤에 많이 창작했다. 내용은 주로 자신이 등용되지 못하는 심정을 쓰거나 은거생활의 한가함을 표현한 것들이다.
  - 3) 유기가 주원장에게 정치적으로 기탁한 후 특히 홍무 연간에 쓴 작품들은 대부분 의기소침함과 우울함, 슬픔과 괴로움을 드러낸 작품이 많다. 이는 명왕조가 건국된 이후 유기의 정치적 입지

유기가 활동했던 元末 이전 원대 중후기 시단의 시풍은 雅正과 險怪의 두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雅正함은 虞集, 楊載, 揭傒斯, 范梈 등 元詩四大家라 불리는 관리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풍이었다. 이후 원시사대가의 제자와 후학에 와서는 唱和 작품 위주로 시가를 창작한데다가 또 이들의 활동무대와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내용이 빈약해지고 풍격은 纖弱함으로 흘렀으며 결국 음풍농월하는 폐단을 드러냈다. 한편 險怪함은 주로 민간의 시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풍이었다. 몽고족이 세운 원왕조에서 한족은 과거제도가 부활된 延祐 2년(1315) 전까지는 벼슬을 하기 어려웠다. 유가적인 공명을 실현하기 쉽지 않았던 당시 문인들이 이를 문학으로 해소하면서 이들의 시풍은 險怪하고 奇譎한 풍격을 이루게 되었다. 원대 중후기 문인들의 雅正한 시풍과 險怪한 시풍은 모두 纖弱한 경향으로 흐르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문인들 창작태도의 개인화 경향과 관련이 깊었다.

「感時述事十首」는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서 유기가 창작한 연작시다. 이 연작시는 명나라 건국 이전에 창작되어 유기 시의 전체 흐름을 살펴보는 데 있어 전기시의 주요 경향을 가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유기는 총 열 수로 구성된 이 연작시에서 원말 사회현실에 대해 자세히 비판하고 있다. 명건국 이후에는 주원장이 功臣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하면서 유기의 시는 현실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창작경향이 변하게 된다.

유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내와 중국에서의 유기 연구 현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내에서는 원명대 시와 관련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아 유기의 시와 관련된 연구 역시 미미하다.<sup>4)</sup> 유기의 筆記『郁離子』와 관련된 논문이 몇 편 발표되었을 뿐,<sup>5)</sup> 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중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유기

가 여의치 않았던 것과는 관련이 깊다. 유기는 개국공신으로 명왕조의 건국에 큰 공을 세웠으나, 주원장이 명나라 황제가 되고 왕권을 공고히 하면서 직언을 서슴지 않는 유기의 강직한 성격은 점차 주원장으로 하여금 그를 멀리하게 했다. 또 주원장이 왕권강화를 위해 개국공신에 대해 숙청을 단행하면서 당시 정치상황이나 현실에 대해서 감히 문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는 자연히 자신의 내면으로 관심을 돌려 개인감정에 대한 묘사를 주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명왕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유가의 충효관이 강조되면서 유기처럼 원왕조에서 벼슬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두 왕조를 섬겼다는 이유로 정치적 입지가 타격을 받게 되었다. 유기가 처했던 이러한 외적인 상황은 연로해져가는 그의 개인적인 상황과 함께 그의 내면세계에 영향을 미쳤고, 당시 창작된 시가 역시 개인적이고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경향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4) 일례로 대한중국학회에서 발간하는 『중국학』의 1집부터 77집까지 수록된 논문을 살펴보면 元詩 관련 연구는 찾기 어려우며, 明詩 관련 연구도 「공안파 문학이론의 형성」(남덕현, 『중국학(구 중국어문논집)』, 제11집, 1996, pp.117-139.), 「三袁의 사회성격 고찰」(남덕현, 『중국학』, 제19집, 2002, pp.77-100.), 「명대 격조설 탐색」(김진영, 『중국학』, 제21집, 2003, pp.91-128.) 등 세 편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 다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들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명대 시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사정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5) 「『郁離子』의 특징과 中國 寓言發展史上的 意義」(오수형, 『중국문학』, 40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

관련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였다. 이후 유기 연구는 20년 가까이 침체되었다가 2000년 전후에 새로이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유기 연구는 다방면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편이어서 그의 詩歌, 詞, 教育思想, 道家思想, 學術思想, 政治思想, 美術思想, 文學思想, 그와 관련된 민간 전설과 민속여행 등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sup>6)</sup> 소논문도 유기 문학, 정치관, 교육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sup>7)</sup> 전체적으로 중국학계의 유기에 대한 연구는 문학을 포함해 다방면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기 문학의 지위에 대해 『四庫全書·誠意伯文集提要』에서 “그 시는 침울하면서 기세가 변화해 스스로 일가를 이루어 高啓와 서로 겨룰만하다. 그 문장은 깊고 법도가 있어 또 宋濂과 王禕의 다음이다(其詩沉鬱頓挫, 自成一家, 足與高啓相抗. 其文闔深肅括, 亦宋濂王禕之亞)”라며 시와 문장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다. 청대 沈德潛은 『明詩別裁』에서 유기 시를 평가해 “원대의 시는 모두 문사의 화려함을 숭상했는데 유기는 홀로 높은 풍격을 표방했으며, 당시 두보와 한유를 따르고자 해 초연히 홀로 뛰어났으니 참으로 한 시대의 으뜸이다(元代詩都尙辭華, 文成獨標高格, 時欲追杜韓, 故超然獨勝, 允爲一代之冠)”라 했다. 심덕잠은 원말의 시단 풍토에서 유기 시가 두보와 한유의 비판적인 현실주의 창작정신을 계승한 면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 淸初의 錢謙益은 『列朝詩集小傳』에서 유기 전기는 ‘웅건하고 기세가 변화가 있으나(魁壘頓挫)’ 후기는 ‘탄식하고 근심스럽다(咨嗟幽憂)’고 그 창작경향의 변화를 대비시켜 서술한 바 있다.<sup>8)</sup> 이처럼 전겸익과 심덕잠 등 명청대 문인과 비평가들의 평가를 통해 이후 문인들이 유기 문학에 대해 주목하고 그 문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03), 「劉基 社會批判의 文學적 접근 - 『郁離子』의 諷刺性을 중심으로」(임진호, 『중국인문과학』, 28집, 중국인문학회, 2004), 「『郁離子』 架空人物類型分析」(강정만, 『중국어문학논집』, 91집, 2015) 등이 발표되었다.

6) 「劉基理學思想研究」(吳坤曉, 湖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20), 「劉基美學思想研究」(杜建明, 四川師範大學 碩士論文, 2019), 「劉伯溫堪輿術傳說的情節類型研究」(李茗淇, 溫州大學 碩士論文, 2018), 「劉伯溫傳說的神異性情節類型研究」(劉陽, 溫州大學 碩士論文, 2017), 「劉基生態思想研究」(李會霞, 蘇州大學 碩士論文, 2016), 「劉基散文研究」(郭玉,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1), 「劉基詩詞創作研究」(田剛, 遼寧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 「劉基詞研究」(桑軍, 北京語言大學 碩士論文, 2008), 「劉基詩歌研究」(顧瑞雪, 湖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5) 등 다수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

7) 「劉伯溫傳說的歷史傳承和現代價值研究」(周亞娟, 『今古文創』, 2021), 「劉伯溫用兵之道」(俞美玉, 『孫子研究』, 2021), 「劉基研究之反思」(張宏敏,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9), 「劉伯溫文化研究:從多學科合作到文旅產業拓展」(黃濤·蔡貽象, 『溫州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8), 「有關劉伯溫的詩詞考述二則」(吳留營, 『文獻』, 2018), 「劉伯溫傳說的產生及其演變——“人物神話”與“文化交流”」(陳學霖, 『浙江工貿職業技術學院學報』, 2007) 등 주로 유기 고향인 浙江省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 錢謙益 撰, 『列朝詩集小傳』, 臺灣: 世界書局, 1965, p.13, 「劉誠意基」 참조.

유기의 문학작품 중 시가는 1999년 浙江古籍出版社에서 나온 『劉基集』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300여수가 전해진다. 유기는 다양한 시체를 창작했지만 그 중 가장 자주 쓴 것은 樂府古題, 五言古詩와 七言律詩였다. 이 세가지 시체로 쓴 시가 대략 700여수로 전체 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感時述事十首」는 오언고시로 창작되었다.

유기가 58세였던 1368년 명이 건국되었으므로 유기는 원 왕조 치하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면서 원말의 혼란한 상황을 생생하게 목도했다. 원말 백성들의 삶은 부패 관리들의 세금 수탈, 권신들에 의한 권력 농단, 군관의 세습으로 인한 무능한 군관 양성, 계속되는 天災와 人災 등으로 인해 피폐해져 갔다. 원말 사회현실에 대한 유기의 비판의식이 보이는 시들은 「北上感懷」, 「過東昌有感」, 「贈周宗道六十四韻」, 「渡江遣懷」, 「感懷三十一首」, 「雜詩四十一首」, 「感時述事十首」 등이 있다. 이 중 「感時述事十首」는 가장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원말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기는 48세였던 1358년(元 至正 18년)에 「感時述事十首」를 썼다. 「感時述事」라는 제목에 나타나 있듯이 ‘그 시기 사회상에 대해 느낀 바가 있어 당시 일을 서술해’ 총 10수에 담은 연작시다. 이 연작시에서 그는 원말의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등의 폐단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백성이 겪는 고통을 서술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史詩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 10수이지만 매 수별로 28구부터 48구에 이르는 장편시이며,<sup>9)</sup> 원말에 유기가 창작한 사회비판시 중 대표성을 띠는 연작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感時述事十首」를 통해 유기의 사회비판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는 유기의 시 「感時述事十首」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유기의 사회비판의식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장에서는 「感時述事十首」가 창작된 배경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感時述事十首」에 보이는 유기의 원말 사회비판의식을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백성피폐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 「感時述事十首」가 가지는 문학적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9) 「感時述事十首」의 각 수별로 구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수는 28구, 제 2수는 34구, 제 3수는 32구, 제 4수는 36구, 제 5수는 32구, 제 6수는 40구, 제 7수는 46구, 제 8수는 40구, 제 9수는 48구, 제 10수는 42구다.

## 2. 劉基와 「感時述事十首」

### 1) 劉基의 시학관

유기의 사회비판시의 내용은 그의 시학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기는 儒者로서 유가적 문학관에 입각하여 문학은 세상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經世致用의 관점을 갖고 있었다. 또 “문학의 성하고 쇠함은 참으로 시대가 태평한지 아닌지와 관련이 있다(文之盛衰, 實關時之泰否)”<sup>10)</sup>라며 문학과 시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유기의 문학사상은 그가 지인들의 문집에 써준 서문들에 잘 나타나 있다. 유기는 문학은 시대와 사회상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백성들의 희노애락을 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또 『시경』으로부터 전해 내려온 문학이 가진 풍자와 경계의 기능과 세상에 대한 교화작용을 중시했다.

시는 어떻게 창작되는가? 감정이 마음에서 나와 말로 형상화되는 것으로 『風』과 『雅』가 『六經』에 들어간 것은 찬미와 풍자·풍간과 경계가 세상의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 없어서다. 따라서 선왕은 풍속을 살피고 다스림을 관찰해, 궁핍하여 하층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자 했으니, 단지 시문이라고만 부를 수 있겠는가. 후대에 태사직이 없어졌고, 이에 아첨하는 무리가 모두 시로 아첨을 하여 지나친 찬미가 많아지고 풍자는 적어졌다. 송대에 이르러서는 비방하는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후에 풍아의 도는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다.

오늘날 세상에 말을 금하는 법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는데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습관이 변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를 쓰는 사람들은 바람과 달을 노래하고 꽃과 새와 노닥거리는 것을 능사로 여기지 않음이 없다. 고관과 귀인의 시를 모범으로 삼으며 옛 것을 스승삼지 않아, 좋고 나쁨이 대중의 기준으로 정해져 옥인지 돌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워 여기서 주장하면 저기서 따르고, 서로 결탁하다가 는 변하여 서로 비방하니, 시의 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sup>11)</sup>

10) 「蘇平仲文集序」, 劉基 著, 林家驪 點校, 『劉基集』,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9, p.88. (이후 각 주에서는 『劉基集』과 관련된 서지사항을 생략한다).

11) 夫詩何爲而作哉? 情發於中而形於言, 『國風』二『雅』列於『六經』, 美刺風戒, 莫不有裨於世教. 是故先王以之驗風俗察治忽, 以達窮而在下者之情, 詞章云乎哉. 後世太師職廢, 於是夸毗戚施之徒, 悉以詩將其諛, 故溢美多而風刺少. 流而至於宋, 於是誹謗之獄興焉. 然後風雅之道掃地而無遺矣. 今天下不聞有禁言之律, 口而目見耳聞之習未變. 故詩者, 莫不以哦風月弄花鳥爲能事. 取則於達官貴人, 而不師古, 口定輕重於衆人, 而不辨其爲玉爲石. 昏昏惺惺, 此倡彼和, 更相朋附, 口轉相詆訾, 口而詩之道, 無有能知之者矣. (『照玄上人詩集序』, 『劉基集』, p.74.)

위의 글에서 유기는 먼저 『시경』의 風雅가 가지고 있었던 풍자와 경계 기능이 세상에 대해 교화작용을 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자신이 살던 그 시기에는 시가가 가진 풍자의 기능이 없어지고 음풍농월하는 풍조가 유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원말 시단에 유행한 纖弱한 시풍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아울러 고관대작의 시를 무작정 따라 쓰면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우수한 시가 전통은 따르지 않고 주권없이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시단의 풍토도 비난하고 있다. 유기는 아래의 「項伯高詩序」에서는 시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치세에는 시에 즐거움이 배어나오고, 난세에는 슬픔이 저절로 표현되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 글에서 그는 두보가 살았던 시대가 전란의 시대라 두보의 시에 근심과 원한, 우울한 풍격이 많았던 것처럼 자신도 원말의 어지러운 상황을 겪고 나서야 자신의 시가 분노와 한탄으로 가득차게 되는 것을 몸소 깨달았음을 밝히고 있다.

세상에 치세와 난세가 있어서 시에 슬픔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이다. 서로 좇아 변하는 것이니 모두 자연스레 나오는 것으로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봄 짐승의 소리는 기쁘고 즐거우며, 가을 벌레의 소리는 처량하고 절절하니, 사물은 감정이 없는데도 그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는가! 내가 젊었을 때 두보의 시를 읽고는 근심과 원한·우울한 풍격이 많아 자못 이상하게 여겼는데, 어떤이가 말하기를 두보가 난세를 만나 그 원한과 슬픔을 표현해 시가 된 것이니 어찌 평화롭고 즐거울 수 있겠냐고 했다. 그러나 보고 들은 것이 다른 상황이었기에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근래 5·6년간 전란이 번갈아 일어나 백성과 만물이 쇠잔해지니, 상심함이 눈에 가득 해져 매번 시를 쓸 때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처량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한탄하게 되어 그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으니, 이런 연후에야 두보가 성정을 표현함이 참으로 부득이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당시에) 이상하게 여겼던 것은 여름 벌레가 얼음을 알지 못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sup>12)</sup>

원말에 곳곳에서 난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유기는 자연스레 시 속에 위정자에 대한 원망과 풍자를 담게 된 것이었다. 즉 두보가 안사의 난 전후로 시대상을 반영하는 사회시를 쓴 것처럼, 원명 교체기에 살았던 유기 역시 원말에 누적된 여러 사회모순을 목도하고 부득이하게 「感時述事十首」를 창작하게 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12) 世有治亂,□而聲有哀樂. 相隨以變, 皆出乎自然, 非有能強之者. 是故春禽之音悅以豫,□秋蟲之音淒以切,□物之無情者然也,□而況於人哉! 予少時讀杜少陵詩,□頗怪其多憂愁怨抑之氣,□而說者謂其遭時之亂,□而以其怨恨悲愁發為言辭,□烏得而和且樂也! 然而聞見異情,□猶未能盡喻焉. 比五六年來, 兵戈迭起, 民物凋耗,□傷心滿目,□每一形言,□則不自覺其淒愴填懷,□雖欲止之而不可,□然後知少陵之發於性情真不得已,□而予所怪者不異夏蟲之疑冰矣.(「項伯高詩序」, 『劉基集』, p.84.)

## 2) 「感時述事十首」의 창작배경

원나라는 중후기에 이르러 통치계급 내부의 분쟁이 격화되어 정치가 혼란에 빠졌으며, 지방 관리들도 부패해 ‘生日錢’, ‘人情錢’ 등 각종 명목으로 백성들을 수탈했다. 원말 順帝 때에 이르러서는 관직을 돈으로 살 정도로 기강이 해이해졌다. 황위 쟁탈전도 심각해 1308년(武宗 至大 元年)부터 1333년(順帝 元統 元年)까지 25년간 8명의 황제가 바뀌었고, 새 황제가 오르면 권한은 권신들이 쥐고 조정을 좌지우지했다. 토지도 후기로 갈수록 일부 귀족과 호족지주, 승려지주 등 소수에게 집중되어 대다수 농민들은 토지를 상실하고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토지의 분배와 소유면에서의 극심한 불균형은 지주와 농민을 첨예하게 대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元末에는 인재와 천재도 매년 계속되었는데, 順帝 至正 연간에는 황하가 매년 범람해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다. 이에 제방을 만들려고 백성을 강제로 징발했다. 당시 백성들이 부담하던 요역도 수십가지 명목이어서, 백성들은 요역을 피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쓰며 비참한 생활을 했다. 여기에서 順帝는 재정 곤란을 해결하려고 지폐를 남발해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민심은 점점 더 조정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다.

원말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쌓여 결국은 홍건군의 起義로 폭발하게 되었다. 명나라 사람 陳邦瞻의 『元史紀事本末·東南喪亂附論』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方國珍은 臺州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劉福通은 潁州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徐壽輝는 羅田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郭子興은 定遠에서 군대를 일으키고, 張士誠은 泰州에서 군대를 일으켰다. …… 元末에 난을 일으킨 사람이 37명이다.<sup>13)</sup>

이처럼 곳곳에서 일어난 홍건군은 당시 민간에 널리 퍼져 있던 白蓮教<sup>14)</sup> 조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원말의 각종 사회문제들로 인해 민간에 팽배해진 反元사상이 백련교와 결합해 농민들에게 강한 흡인력을 가졌던 것이다. 潁州에서 군대를 일으킨 劉福通이 백련교 교주였으며, 강남의 백련교 교주 출신인 彭瑩玉도 徐壽輝를 추대해 기의를 일으켰다. 뒤에 명을 건국한 주원장의 경우 자신의 고향인 안휘에서 郭子興

13) 方國珍起兵於台州, 劉福通起兵於潁州, 徐壽輝起兵於羅田, 郭子興起兵於定遠, 張士誠起兵於泰州 …… 元末作亂三十七人.

14) 白蓮教는 元, 明, 淸 시기에 민간에서 유행한 비밀 종교단체다. 미륵불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다(彌勒下生)는 것을 주장하며, 주로 농민기회와 결합되어 세상에 퍼뜨려졌다. 원말의 홍건기도 그 중 하나다.



의 홍건군 기의에 참여하면서 정치 세력을 키워 나갔다.

1336년(元 至元 2년) 26세 때부터 관직을 시작한 유기의 관직생활은 그리 평탄치 않았다. 관직 생활을 시작하며 「官箴」에서 정치적 포부를 밝히기도 했던 그는 업무 중 살인사건을 처리하다 그 지역 몽고 권력자의 이익에 해를 끼쳐 파직되었다. 그 뒤 다시 부름을 받아 行省職官掾屬이 되었지만 동료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 1년 뒤 사직했다. 그 후 여러 해 은거했던 유기는 1348년(元 至正 8년)에 다시 江浙行省儒學副提舉와 行省考試官으로 임명되어 의기 충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기는 자신의 직분을 넘어 실직한 감찰어사를 탄핵해 1349년(元 至正 9년)에 사직해야 했다. 당시 원나라는 몹시 혼란스러워 홍건군 기의가 곳곳에서 싹트고 있었다. 이후 원나라 조정은 농민기의를 진압하기 위해 유기를 다시 기용했다. 1351년(元 至正 11년)에서 1360년(元 至正 20년)까지 10년간 유기는 농민기의를 진압하는 전쟁에 두 번 참가했다. 첫 번째는 1352년(元 至正 12년) 유기가 42세 때로 그는 浙東 元帥府都事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당시 浙東 宣慰副使였던 石抹宜孫이 臺州와 溫州 일대에서 해적 方國珍을 토벌하는 군사행동을 전개했다. 다음해인 1353년(至正 13년)에 유기는 방국진을 투항하게 하는 책략에 반대해 방국진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집권자들과 의견이 부딪혔다. 방국진의 뇌물을 받은 당시 집권자들은 유기가 제멋대로 위력을 휘두른다 여겼다. 이로 인해 유기는 파직되어 紹興에 구금되었다. 이후 2년간 유기는 산수를 방랑하며 시문을 쓰며 위안을 삼았다. 두 번째로 농민기의를 진압하는데 참여한 것은 유기가 46세였던 1356년(元 至正 16년)이었다. 당시 그는 다시 江浙行省都事로 임명되어 석말의손과 處州(지금의 麗水)에서 반란군을 색출하기 위해 함께 책략을 세웠으며 安山 吳成七의 기의를 진압했다. 유기는 이 공로로 江浙行省 郎中으로 승진했다. 1358년(元 至正 18년)에 이르러 집권자들이 고의로 유기의 공로를 눌러 원래 직급으로 강등해 병권을 빼앗고 儒學副提舉 자격으로 處州 路總管府判으로 있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sup>15)</sup> 당시 유기는 분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 靑田 武陽村으로 돌아가 2년에 달하는 은거생활을 시작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유기는 나라 일을 결코 잊지 않았으며, 그의 연작시 「感時述事十首」는 이 즈음에 창작되었다.<sup>16)</sup>

### 3. 劉基의 「感時述事十首」에 보이는 사회비판의식

유기는 소년 시절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강한 民本사상을 갖고 있었다.

15) 附錄四 「劉基年表」, 『劉基集』, pp.651-652.

16) 유기의 筆記 『郁離子』도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그가 18세 때 쓴 『春秋明經』에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夫國以民爲本, 而民以食爲本)”<sup>17)</sup>라고 한 구절을 통해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후 과거에 합격한 후에도 원말의 진사로서 유기는 무거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唱和集序」에서 “古人이 말하기를 ‘군자는 조정에 있으면 백성을 근심하고, 재야에 있으면 임금을 근심한다’고 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니 흙·기와·나무·돌처럼 무심해서는 안된다”<sup>18)</sup>라며 儒者로서 백성과 임금에 대해 가져야 하는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다.

연작시 「感時述事十首」는 유기가 儒者로서 관찰한 원말의 여러 사회문제들을 시로써 비판한 작품이다. 본고는 유기가 「感時述事十首」에서 지적한 원말 사회문제를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백성피폐 등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sup>19)</sup> 열 수 모두 시 전체를 인용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관리부패

관리의 부패는 망해가는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회문제다. 원나라 말의 관리들도 심각하게 부패하여 백성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다. 넘쳐나는 관리들은 사익만 추구하여 백성을 수탈했으며, 관리의 등용도 공정하지 못해 인척이 등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유기는 당시 관리들의 부패문제와 이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의 모습을 「感時述事十首」<sup>20)</sup>의 제 1수와 제 2수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其一

天王有萬國, 천자는 수많은 나라를 소유하니,  
撫治不能遍. 어루만져 다스림이 두루 미칠 수 없다.  
百僚分所司, 각 관리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하고,  
控制倚方面. 통제는 지방관에 의지했다.  
旬宣貴浹洽, 널리 선포하기를 두루 윤택하게 함을 귀히 여긴다 하고는,  
付托屬隆眷. 맡기는 것은 특히 중시하는 사람에게 했다.  
易置苟無恒, 직위를 바꾸어 항상됨이 없다면,

17) 『春秋明經·築鄆大無麥禾臧孫辰告糴於齊新延厯』, 『劉基集』, p.583.

18) 古人有言曰, 君子居廟堂則憂其民, 處江湖則憂其君. 夫人之有心, 不能如土瓦木石之塊然也. (『劉基集』, p.91.)

19) 이 내용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수의 시에 몇 가지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위주로 서술했다.

20) 「感時述事十首」, 『劉基集』, pp.363-367. (이후 인용하는 「感時述事十首」는 각주를 생략하기로 한다).

勤怠朝夕變. 힘쓰고 태만함이 아침저녁으로 변한다.  
 自非穀氏儔, 젓먹이와 아내가 아니라면,  
 向官匪郵傳?<sup>21)</sup> 관리 도적에게 역참이 공문을 전하겠는가?  
 矧茲世多故, 하물며 세상에 변고가 많은데,  
 軍府希間宴. 군부는 연회를 하려고 한다.  
 戎機一以失, 전쟁의 유리한 기회를 한 번 놓치면,  
 蟻穴憤臺殿. 개미굴에서 궁전에 분노한다.  
 公庭委舊事, 조정은 예전 제도 버리고,  
 書牘呈新選. 편지에 새로 선발한 사람을 올린다.  
 來者且遲遲, 올 사람은 또 더디고,  
 在者同秋燕. 있는 사람은 가을제비처럼 떠난다.  
 偷安待日至, 안위를 탐하며 날이 되기를 기다리고,  
 退托從私便. 물러나 피해 개인의 이익을 쫓는다.  
 奸貪遂乘隙, 사악하고 탐욕스러워 마침내 기회를 이용하니,  
 民病孰與唁? 백성은 병들어 누구와 더불어 위로하겠는가?  
 大臣國柱石, 대신은 나라의 기둥과 주춧돌이어서,  
 憂喜相連纏. 근심과 기쁨이 서로 뒤얽혀있다.  
 反躬既遺闕, 나 자신을 돌아보니 이미 벼슬을 버렸으니,  
 何以率州縣? 어찌 州縣을 거느리겠는가?  
 寄語要津人, 요직자에게 말 하고파도,  
 有舌未宜咽. 혀가 있어도 꼭 삼키지 못하는 것과 같네.

위 시는 제 1수로 유기는 시작 부분에서 천자는 각 지역의 통치를 지방관에게 맡기게 되는데, 원말에는 관리를 쉽게 바꾸어 지방관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직위에 전념하지 못하고 태만하게 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관을 바꾸면 새 관리는 더디게 오고 원래 관리는 가을제비 떠나듯 급히 떠나 백성을 돌볼 이가 없음도 언급하고 있다. 관리는 자신의 안위만을 꾀하고 개인의 이익만 쫓아 간사하고 탐욕스러울 뿐이며 이런 지경에 이르니 백성은 고통받고 위로받을 데가 없음을 마음 아파하고 있다. 유기는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은 막상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 있는 상태라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其二

十羊煩九牧, 열 마리 양 키우는데 아홉 목자 번잡하게 두는 것은,  
 自古貽笑嗤. 예로부터 조롱거리 남겼다.

21) 여기서는 ‘郵’를 중국 고대에 정부 문서를 전달했던 사람인 ‘역참’으로 보았다.

任賢苟不貳, 현인을 임용함이 만약 한결같다면,  
 焉用多人爲? 어찌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겠는가?  
 師行仰供給, 높은 분 행차하면 우리러 재물을 대니,  
 州縣方告疲. 州縣의 관리는 모두 피로함을 고한다.  
 差徭逮所歷, 요역에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가고,  
 添官有權宜. 관리 추가하는 데는 임시변통 방법 있다.  
 奈何乘此勢, 어찌 그 세력에 편승해,  
 爭先植其私? 앞다투어 그 사사로움만 증식하려 하는가?  
 百司并效尤, 온갖 관리가 나쁜 것 본받아,  
 貨賂縱橫飛. 뇌물이 어지러이 날아다닌다.  
 列坐隘公堂, 좁은 公堂에 줄지어 앉아,  
 號令紛披離. 어지러이 호령한다.  
 名稱到輿隸, 명칭이 수레꾼과 노예까지,  
 混雜無尊卑. 뒤섞여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다.  
 正官反差出, 정식 관리가 도리어 차출되어 나가,  
 道路不停馳. 길에서 쉬지 않고 달린다.  
 徇祿積日月, 봉록을 날로 쌓아가는 것이,  
 官吏之所希. 관리가 바라는 바다.  
 此輩欲何求, 이 무리는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가,  
 腹剥圖身肥. 착취하고 수탈해 몸을 살찌우는 거다.  
 世皇一宇宙, 三皇의 시대에는 세상이 하나였고,  
 四海均惠慈. 천하는 모두 자애로왔다.  
 盜賊乘間發, 도적이 기회를 틈타 일어나니,  
 咎實由官司. 잘못된 사실 관리로부터 비롯되었다.  
 云胡未悔禍, 왜 재앙 일으키게 된 것 후회하지 않고,  
 救焚用膏脂. 위급함에서 구해내는데 백성의 고혈을 쓰는가.  
 姻婭遂連茹, 인척은 마침내 줄줄이 등용되고,  
 公介棄草茨. 공정과 절개는 풀 버리듯 한다.  
 農郊日增壘, 농경지에는 날로 보루가 더해가고,  
 良民死無期. 양민의 죽음은 끝이 없다.  
 天關深虎豹, 요새에는 호랑이와 표범같은 이 깊이 들어와 있으니,  
 欲語當因誰? 말하고 싶어도 누구에게 의지하겠는가?

제 2수에서 유기는 관리의 부패문제를 더욱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 먼저 관리의 수는 많고 백성의 수는 적어 백성의 각종 세금 부담이 막중함을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높은 분이 행차하면 지방 관리는 대접하느라 피폐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

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임시변통으로 마구잡이로 뽑아 늘어난 관리들은 백성은 안중에도 없고 사익만 추구하고 뇌물을 바치며, 이런 관리들이 바라는 바는 오직 ‘착취하고 수탈해 몸을 살찌우는(朘剥圖身肥)’ 것임을 생생하게 읊고 있다. 또 관리선발에 공정함은 찾아볼 수 없고 인척들이 줄줄이 등용되는 상황도 지적하고 있다. 백성을 닥치는대로 요역에 잡아가는데다 전란으로 농경지에 보루가 들어가 양민이 갖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상황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시의 제 25구와 26구 ‘도적이 기회를 틈타 일어나니 잘못은 사실 관리로부터 비롯되었다(盜賊乘間發, 咎實由官司)’는 관리가 핍박하면 백성은 반란을 일으킨다는 ‘官逼民反’을 이야기한 것이다. 관리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해 백성을 괴롭히니 백성은 도적이 되어 난을 일으킬 수 밖에 없는 이치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제 23구와 24구에서 천하가 평화로왔던 세황의 시대를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있다(世皇一字宙, 四海均惠慈).

## 2) 군대적폐

유기는 「感時述事十首」의 제 3수와 제 4수에서는 원말의 군대가 가지고 있던 각종 폐단에 대해 주로 비판하고 있다. 군관은 세습되고, 사병은 훈련받지 못했으며, 군관이나 사병이나 나라를 지키는 본연의 임무는 안중에도 없고 일신의 안일만 꾀하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 其三

先王制民產,	선왕이 백성의 생업을 제정할 때,
曷分兵與農.	어찌 병사와 농민을 나누었겠는가.
三時事耕稼,	봄, 여름, 가을은 농사에 힘쓰고,
閱武在嚴冬.	무예를 익히는 건 엄동이었다.
亂略齊憤疾,	반란과 침탈은 모두 통탄하는 바니,
戰伐厥有庸.	전쟁이 어찌 쓸모가 있겠는가.
那令異編籍,	백성의 호적을 달리 하게 하면,
自使殊心胸.	저절로 마음을 달리 가지게 한다.
坐食不知恩,	무위도식하며 은혜를 모르고,
怙勢含威凶.	권세에 의지해 흉악한 위세를 드러낸다.
將官用世襲,	고급군관을 세습받은 사람으로 쓴데다,
生長值時雍.	나고 자랄 때 태평시대 만났네.
豈惟昧韜略?	어찌 用兵의 지략만 모르겠는가?
且不習擊剽.	치고 찌르는 것도 배우지 못했다.

悍卒等驕子, 용맹한 사병이 교만한 군관을 평가하니,  
 有令亦無從.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는다.  
 跳踉恣豪橫, 제 맘대로 날뛰어 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鼓氣陵愚戇. 고취된 사기로 우매한 군관을 능멸한다.  
 所以喪紀律, 기강을 잃었으니,  
 安能當賊鋒! 어찌 적군의 공세를 당해내겠는가!  
 崩騰去部曲, 급히 군대를 떠나,  
 蟻合尋歸踪. 개미처럼 모여 돌아갈 발자취 찾는다.  
 時方務姑息, 바야흐로 일시적 안일을 탐하고,  
 枉法稱寬容. 법을 왜곡하고는 관용이라 한다.  
 寧知養豺虎, 승냥이와 호랑이 기른 것을 어찌 알겠는가,  
 反噬中自鍾. 배반하는 데로 저절로 모인다.  
 國家立制度, 국가가 제도를 만들면,  
 恃此為垣墉. 이에 의지해 울타리로 삼는다.  
 積弊有根源, 적폐에는 근원이 있어,  
 終成腸肺癰. 결국 장과 폐에 악창이 생긴다.  
 何由復古道, 어떻게 하면 옛 道로 돌아가,  
 一視均堯封. 중국 땅 조화로운 걸 볼 수 있을까.

제 3수에서 유기는 음서제도에 의해 세습받은 군관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원나라는 음서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공적에 따라 관리가 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료의 자제는 부친의 지위에 따라 관직을 얻을 수 있었다. 음서제도는 역대 봉건왕조에서 보편적으로 실행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를 통해 통치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원나라에서는 결과적으로 덕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게 되어 제대로 정치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군대의 경우는 관직의 세습으로 인한 폐해가 더욱 심했다. 이 시에서 유기는 세습받은 군관은 지략도 없고 武功도 없어 군대에서 위신이 서지 않아 하급군관과 병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사병들도 돌아갈 궁리만 하고 배반을 도모하는 등 군대 기강이 무너져 수습할 수 없는 지정임을 비판하고 있다.

#### 其四

豢狗不噬禦, 개를 길렀는데 물거나 저항하지 않아,  
 星馳募民兵. 급히 민병을 모집한다.  
 民兵盡烏合, 민병은 모두 오합지졸이니,  
 何以壯干城. 무엇으로 장수를 강화시킬 것인가.

百姓雖云庶,	백성은 비록 구름처럼 많지만,
教養素無行.	교육과 배양을 평소 하지 않았다.
譬彼原上草,	저 들판의 풀에 비유해보면,
自死還自生.	저절로 죽고 또 저절로 생겨나는 것과 같다.
安知徇大義,	어찌 알겠는가! 대의를 추구해,
捐命爲父兄!	부형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걸.
利財來應召,	재물 얻으러 소집에 응해 온 것이라,
早懷逃甯情.	일찌감치 도망가려는 마음 품고 있다.
出門即剽掠,	외출하면 약탈하여,
所過沸如羹.	지나간 곳이 탕 끓듯이 어지럽다.
總戎無节制,	통솔자는 지휘를 못하고,
顛倒迷章程.	위아래가 바뀌고 규율을 분별 못한다.
威權付便嬖,	위세와 권세있는 이들은 간신을 따르고,
賞罰昧公平.	상벌은 공평함에 어둡다.
飢寒莫與恤,	굶주리고 추워도 구휼하지 않아,
銳挫怨乃萌.	날카로운 기세가 꺾이고 원망이 싹튼다.
見賊不須多,	적을 보면 그 수가 많지 않아도,
奔潰土瓦傾.	뿔뿔이 도망가 흩어지고 무너지듯 한다.
旌旗委曲野,	깃발은 꾸불꾸불한 들판에 버리고,
鳥雀噪空營.	참새는 빈 진영에서 지저귄다.
將軍與左右,	장군은 주위 사람과 함께,
相顧目但瞠.	서로 돌아보며 눈을 휘둥그레 뜰 뿐이다.
此事已習慣,	이 일은 이미 익숙해져,
智巧莫能爭.	지혜와 기교는 겨룰 수가 없다.
廟堂忽遠算,	조정에서 갑자기 원대한 계획이 있으면,
胸次猜疑并.	마음 속에 시기와 의심 병존한다.
豈乏計策士,	어찌 계략있는 책사가 부족해,
用之非至誠.	기용해도 지극 정성인 사람 없는가.
德威兩不立,	덕과 위엄 두가지가 서지 않으니,
何以御群氓.	어찌 민중을 다스리겠는가.
慷慨思古人,	강개하여 고인 그리워하고,
測愴淚沾纓.	슬픔에 눈물 흘러 젖은 적신다.

유기는 제 4수에서 급히 모집한 사병이 훈련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어서 大義 추구하고 같은 명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재물을 얻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병들이 틈만 나면 도망가려 하고 외출했다 하면 백성을 약탈해

쭈시고 다니는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권세있는 이들은 간신에게 아첨하기 바쁘고 상벌은 공평하지 않은데다 사병들의 굶주림과 추위에는 관심조차 없다. 제 19구와 제 20구의 ‘굶주리고 추워도 구휼하지 않아, 날카로운 기세가 꺾이고 원망이 싹튼다(飢寒莫與恤, 銳挫怨乃萌)’는 사병들을 굶주림과 추위에 방치해 그들로 하여금 원망이 생겨나게 해 적을 보기만 하면 도망가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여섯 구에서 유기는 원말의 각종 사회문제를 결국 인재채용의 잘못이라 귀결 짓고 있다. 계략있는 책사를 채용하지 못해 조정의 덕과 위엄이 서지 않으니 백성들을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 3) 황제무능

『感時述事十首』의 제 7수와 제 10수에서 유기는 원말에 나라가 도탄에 빠진 것이 황제의 무능으로 인한 것임을 비판하고 있다. 원말에 기의를 일으킨 해적 方國珍을 초기에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관직을 줌으로써 견잡을 수 없는 형국에 빠진 것을 이 두 수의 시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황제의 무능으로 인해 백성들이 처한 비참한 처지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其七

虞刑論小故, 虞나라는 작은 잘못을 따져 형벌을 내렸고,  
夏誓殄渠魁. 夏나라는 반란군 우두머리를 소멸시켜 경고했다.  
好生雖大德, 살생하지 않는 것이 비록 큰 덕이긴 하지만,  
縱惡非聖裁. 악을 내버려두는 것은 황제의 판단이 아니다.  
官吏逞貪婪, 관리는 탐욕을 마음껏 일삼아,  
樹怨結禍胎. 원한을 만들어 재난의 근원이 된다.  
法當究其源, 법은 마땅히 그 근원을 살펴야하고,  
剪鋤去根荄. 없앨 때에는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蒙龍曲全宥,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것을 모두 용서하니,  
駕患於後來. 환난을 막는 일은 뒤에 온다.  
濫觴不堙塞, 근원의 작은 물 막지 않으니,  
滔天谷陵<sup>22)</sup>頽. 온 세상에 넘쳐 谷陵墓가 무너진다.  
總戎用高官, 사령관이 고관 등용한다는 것이,

22) 谷陵은 골짜기에 무덤을 만든 谷陵墓를 가리킨다. 원대에는 임금이 죽은 후 몽고 고원의 골짜기인 기련곡(起輦谷)에 묻었다. 이는 몽고족의 풍습에 따른 것으로 평지에 묻은 후 능이나 건 축물을 짓지 않아 무덤을 찾기 어렵게 하기 위함이었다.



沐猴戴母頭.	원숭이에 갓 씌워 놓는 것 같은 형국이다.
玉帳飫酒肉,	장수의 장막에서는 술과 고기 실컷 먹는데,
士卒食菜羹.	사병들은 푸성귀 먹는다.
未戰已離心,	전쟁 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 떠나,
望風遂崩摧.	바람소리 듣고도 무너진다.
招安乃倡議,	투항하라고 제안하면,
和者聲如雷.	화답하는 사람 소리가 우레같다.
天高豹關遠,	하늘 높고 표범 있는 변경에는,
日日照不該.	해와 달이 비추어도 두루 미치지 못한다.
俱曰賊有神,	모두 말하길 적에게는 신이 있어,
討之則蒙災.	공격을 개시하면 재앙을 당한다 한다.
大臣恐及己,	대신은 자신에게 미칠까 두려워,
相視若銜枚.	서로 보며 입에 막대기를 문 듯 소리내지 못한다.
阿諛就姑息,	아첨하면 분별없이 관용을 베풀고,
華絨被死灰.	고관들은 죽음당해 재가 된다.
奸宄爭效尤,	간사하고 나쁜 이들 다투어 나쁜 짓 따라 해,
無風自揚埃.	바람 없는데도 저절로 먼지 날린다.
嘯聚逞強力,	서로 불러 모여 강한 힘 보여주며,
謂是爵祿媒.	이는 작위와 봉록이 가져온 거라 말한다.
黎民亦何辜,	백성이 또 무슨 죄 있길래,
骨肉散草萊.	가족이 초야에 흩어진다.
傾家事守禦,	가산을 탕진하고 수비에 매달리니,
反以結嫌猜.	도리어 혐오와 시기 생긴다.
慟哭浮云黑,	뜬 구름 검어지는 것 통곡하는데,
悲風爲徘徊.	슬픈 바람이 배회한다.
赤子母不憐,	갓난아기를 어미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니,
不如絕其胚.	그 태아를 죽이는 것만 못하다.
養梟逐鳳凰,	기른 올빼미가 봉황을 쫓아내니,
此事天所哀.	이 일은 하늘이 슬퍼하는 바다.
胡爲尚靡定,	어찌 아직도 바로잡지 않아,
顛倒隍與隄.	허벅지와 턱이 뒤바뀐 것과 같은가.
春秋戒肆眚,	춘추시대에는 죄인을 너그러이 대하는 것 경계했으니,
念此良悠哉.	이를 생각하니 참으로 아득하다.

제 7수는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제 1구(‘虞刑論小故’)~제 12구(‘滔天谷陵頹’)로 “살생하지 않는 것이 비록 큰 덕이긴 하지만,

악을 내버려두는 것은 황제의 판단이 아니다(好生雖大德, 縱惡非聖裁)”를 중심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악(惡)’은 方國珍을 가리키는데, 방국진은 원말에 反元의 기치를 내걸고 원 조정이 조세로 징수해 배로 실어나르던 곡물을 약탈하고 있었다. 유기는 1353년(元 至正 13년)에 方國珍 형제를 처단하라고 건의했으나 당국자들이 방국진의 뇌물을 받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원나라 조정은 방국진에게 귀순을 권유해 벼슬을 내렸다. 이후 원 조정은 수습할 수 없는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이에 유기는 “모호한 태도로 잘못된 것을 모두 용서하니, 환난을 막는 일은 뒤에 온다(蒙龍曲全宥, 駕患於後來)”라며 원 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제 11구~제 12구 “근원의 작은 물 막지 않으니, 온 세상에 넘쳐 谷陵墓가 무너진다(濫觴不壅塞, 滔天谷陵頽)”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않아 결국 원조정이 무너질 위기에 빠졌음을 표현하고 있다. 제 13구(‘總戎用高官’)~제 32구(‘謂是爵祿媒’)는 내용상 두 번째 부분으로 군대의 고위직으로 무능한 사람을 앉혀놓고 장수는 호의호식하는 반면 사병은 열악한 대우를 받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런 형국에 사병은 전의를 상실해 적에게 투항하기 바쁘고 조정 대신들은 일신의 안위를 위해 어떤 간언도 하지 못하며, 황제는 무능해 간신들은 총애하고 충신들은 죽이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제 33구(‘黎民亦何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러한 황제의 무능으로 백성이 받는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가 갓난아기를 버리는 비참한 광경이 묘사되어 있으며, 마지막 두 줄에서 방국진과 같은 죄인은 단호하게 처단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其十

秦皇縣九字, 진시황이 九州에 縣을 두어,  
三代法乃變. 三代之 법이 변했다.  
漢祖都咸陽, 한고조는 咸陽을 도읍으로 하고,  
一統制荒甸. 통일시켜 변경지역을 제압했다.  
豪雄既鏖削, 영웅과 호걸이 이미 평정하여,  
瘡痍獲休宴. 백성의 고통 멈추었다.  
文皇繼鴻業, 한고조는 대업을 이어,  
垂拱<sup>23)</sup>未央殿<sup>24)</sup>. 未央宮에서 無爲로 천하를 다스렸다.  
累歲減田租, 여러 해 이어 토지세 감하고,

23) ‘垂拱’은 ‘옷소매를 늘어뜨리고 팔장을 깐다’는 뜻으로 할 일이 없음을 가리키는데 뒤에는 황제가 無爲로 다스리는 것을 칭송하는데 많이 쓰였다.

24) 未央殿은 서한시기 궁전 未央宮을 가리킨다. 漢 高祖 7년에 蕭何가 건설했다. 중국 고대에 먼 적이 가장 크고, 사용 기간이 가장 길고, 보존 연한이 가장 오래된 궁전이었다. 천여년 전에 파괴되었다.

頻年賜縑絹. 해마다 비단 하사했다.  
 太倉積陳紅, 큰 창고에는 묵은 곡식 쌓였고,  
 園府朽貫線. (화폐 주관) 관청에는 (돈 오래 쌓여)  
 돈 꿰는 끈이 썩을 정도였다.  
 是時江南粟, 이 때는 강남 곡식을,  
 未盡輸赤縣. 도읍으로 다 보내지도 못했다.  
 方今貢賦區, 지금은 공물과 세금이 구별되어,  
 兩際日月竈. 양 끝에서 매일 매달 무덤 구덩이를 판다.  
 胡爲倚東吳, 어찌 동오 땅에 의지해,  
 轉餉給豐膳. 군대 식량을 바꾸어 풍성한 요리로 공급하는가.  
 徑危冒不測, 길이 험해 예측 못함도 무릅쓰고,  
 勢與蛟龍戰. 기세가 교룡과도 싸울만하다.  
 遂令鯨與鯢<sup>25)</sup>, 마침내 해적으로 하여금,  
 掉尾乘利便. 꼬리 흔들어 형세의 이로움에 편승하게 한다.  
 扼吭要國寵, 요충지를 제압하곤 나라의 총애를 원하니,  
 金紫被下賤. 고관 옷이 해적에게 입혀진다.  
 忠良怒切齒,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은 분노해 이를 악물고,  
 奸宄竟攀援. 간사하고 나쁜 이는 다투어 권력 붙잡고 오른다.  
 包羞屈政典, 수모를 참고 법령 제도 굽히니,  
 尾大不可轉<sup>26)</sup> 해적 세력 커져 통제가 안된다.  
 聖人別九州, 성인은 나누어 九州를 만들었고,  
 田賦揚爲殿. 토지세는 드러내어 궁전지였다.  
 中原一何膴, 중원이 얼마나 비옥했던지,  
 所務非所先. 권면하는 것이 우선시되지 않았다.  
 幽風重稼穡, 幽風은 농사 중시하고,  
 王業<sup>27)</sup>丘山奠. 왕업은 제사를 중시했다.  
 夫微厲末習, 장정을 징집하고 말세의 풍조 경계했으니,  
 孰敢事游燕. 누가 감히 놀고 즐기겠는가.  
 哀哉罔稽古, 슬프구나 옛일을 거울삼지 못하니,  
 生齒徒蕃羨. 백성은 다만 비뚤어지는 이 많아진다.  
 一耕而十食, 한 명이 밭갈아 열 명이 먹어야 하니,

25) ‘鯨’은 원래 고래의 수컷을 가리키고 ‘鯢’은 고래의 암컷을 가리킨다. ‘鯨鯢’은 주로 ‘해적’이나 ‘흉악한 적’을 비유한다. 여기서는 당시의 해적 방국진을 가리킨다.

26) ‘尾大不可轉’은 『左傳·昭公十一年』에 나오는 진고 ‘尾大不掉’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꼬리가 커서 회전할 수가 없다’는 뜻인데 중국 고대에 부하의 세력이 커져 통제할 수 없음을 비유했다. 여기서는 원말의 해적 방국진의 세력이 너무 커져 통제가 되지 않음을 비유했다.

27) 王業은 帝王의 事業을 가리킨다. 천하를 통일하고 왕조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何以奉征繕. 어떻게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를 준비하겠는가.  
 長歌寄愁思, 긴 노래에 근심 기탁하니,  
 涕淚如流霰. 흘날리는 싹락눈처럼 눈물이 흐른다.

제 10수는 이상적이었던 고대 정치와 어그러진 원말의 정치상황을 대비시키는 수법을 통해 이 모든 것의 책임자인 황제의 무능을 부각시키고 있다. 제 1구(‘秦皇縣九宇’)~제 28구(‘尾大不可轉’)는 고대의 태평성세 때 변경이 진압되고 백성들 세금부담도 적고 모든 면에서 풍요로웠던 상황을 묘사한 다음 이어서 원말의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즉 원말 백성들이 막중한 세금을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 조정이 해적 방국진에게 높은 관직을 내려 그 세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제 21구의 ‘鯨鯢’와 제 24구의 ‘下賤’은 해적 방국진을 가리킨다. 유기는 방국진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다 파직되어 紹興에 구금되었었다. 제 29구(‘聖人別九州’)부터 마지막까지는 고대에 왕과 백성들이 각자 위치에서 자신의 직분을 충실했던 이상적인 모습과 원말의 극한 상황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 한 명이 농사지어 열 명을 먹여살려야 하는 사회문제 등을 대비시켜 황제무능으로 인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4) 화폐남발

군비지출이 방대해지자 至正 10년(1350)에 원나라 조정은 화폐발행을 남발하게 된다. 『感時述事十首』의 제 8수에서 유기는 원말의 사회문제 중 화폐남발로 인해 초래된 문제들을 비판하고 있다.

其八  
 八政<sup>28)</sup>首食貨, 八政 중 먹는 것과 재화가 으뜸이라,  
 錢幣通有無. 화폐는 모든 것에 통한다.  
 國朝幣用楮, 우리 왕조 화폐는 닥종이를 사용해,  
 流行比金珠. 금은 보화보다 유행한다.  
 至今垂百年, 지금까지 백년 가까이,  
 轉布彌寰區. 이동하며 전파되어 천하에 가득하다.  
 此物豈足貴, 이 물건이 어찌 귀한 가치를 가지겠는가,  
 實由威令敷. 사실은 정치 명령으로 선포된 것이다.

28) 고대 국가 政事의 8가지 일을 가리킨다. 즉 식생활(食), 재화(貨), 제사(祀), 농지개간(司空), 교육(司徒), 치안(司寇), 외교(賓), 국방(師)의 8가지이다.

廟堂喜新政,	조정은 새로운 정책 좋아해,
躁議違老夫.	조급히 논의하고 원로를 따르지 않는다.
悠悠祖宗訓,	유구한 조상의 규범을,
變之在朝晡.	아침 저녁으로 바꾼다.
瞿然駭群目,	사람들 눈 놀래키고,
疑怪仍擲掄.	의아해 야유케 한다.
至寶惟艱得,	진귀한 보물 얻기 어려운 것 생각해,
韞櫝斯藏諸.	함에 감춰 이를 소장한다.
假令多若土,	만약 대부분이 흙같으면,
賤棄復誰沽.	천히 여겨 버리지 또 누가 사겠는가.
錢幣相比較,	화폐를 서로 비교하면,
好丑天然殊.	좋고 나쁨이 자연히 다르다.
譬彼絺與綌,	곱게 짠 갈포와 곱게 짠 갈포에 비유해보면,
長短價相如.	길이가 달라도 가격이 서로 같은 것이다.
互市從所取,	무역에서 취함에 있어,
孰肯要其絢.	누가 그 조잡한 것을 원하겠는가.
此理實易解,	이 이치는 사실 쉽게 이해되니,
無用論智愚.	지혜롭고 어리석음을 논할 필요 없다.
矧茲四海內,	하물며 이 중국 안에서,
五載橫戈戍.	오년간 창과 몽둥이가 난무함에라.
赤子投枳棘,	갓난아기를 가시밭에 던지니,
不知所歸途.	돌아오는 길을 알지 못한다.
一口當萬喙,	한 개 입이 만 개 주둥이를 당해야 하니,
唇縮舌亦瘡.	입술이 오므려져 혀도 병든다.
導水必尋源,	물길을 끌어내려면 반드시 水源을 찾아야 하고,
源達流乃疏.	水源과 통해 흘러야 막힘이 없다.
藝木必培根,	나무 심으면 필히 뿌리 썩 흙 북돋아야 하며,
根固葉不枯.	뿌리가 견고하면 잎이 시들지 않는다.
慎勿庸邇言,	평소 천박한 말을 하지 않도록 삼가며,
揚火自焚軀.	불을 들어 스스로 몸을 불사른다.
尚克詰戎兵,	군대 다스림을 보좌해,
丕顯厥祖謨.	조상의 책략을 크게 드러내리니.

원 조정은 至正 10년(1350)에 지폐제도의 마지막 변혁을 실행해 ‘至正交鈔’를 발행하고는 이를 新鈔라 했다. 원 조정은 불환지폐 즉, 자체적으로 가치가 없는 화폐를 명령에 의해 화폐로 확정해 강제로 통용시켰다. 결과적으로 이는 화폐가치의 엄청난

하락을 가져왔고 물가의 폭등을 초래했다. 지폐도 조악하게 만들어 오래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썩어버려 교환을 할 수 없는 폐지와도 같았다. 유기는 「感時述事十首」 제 8수에서 원나라 조정이 성급하게 화폐를 남발한데다 화폐의 질이 조악하기까지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또 몇 년간 중국 전역에서 전란이 일어나고 물가가 폭등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갓난 아기를 버릴 지경에 이를 정도로 도탄에 빠진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5) 백성피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기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유가의 民本思想을 계승했다. 그는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國以民爲本, 而民以食爲天)”<sup>29)</sup>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라는 저절로 부유해지지 않고, 백성이 풍족해지면 부유해진다(國不自富, 民足則富)”<sup>30)</sup>고 생각했다. 이러한 민본사상에 입각해 유기는 당시 목도한 백성들의 피폐한 상황을 시에 담았다. 그는 「感時述事十首」의 제 5수, 제 6수, 제 9수에서 원말 백성들의 처참한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했다.

### 其五

古人有戰伐,	고인은 출정해 싸우면,
誅暴以安民.	흉악한 세력을 죽여 없애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
今人尚殺戮,	금인은 살육을 좋아해,
無問豺與麟.	승냥이인지 기린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濫官舞國法,	넘쳐나는 관리는 나라 법을 희롱하니,
致亂有其因.	혼란해지는 데는 그 원인이 있다.
何為昧自反,	어째서 스스로 반성하는데 어둡고,
一體含怒嗔.	모두 노기를 띠는가.
斬艾若草芥,	죽이기를 풀처럼 하고,
虜掠無涯津.	노략질에 끝이 없다.
況乃多橫斂,	게다가 대부분 세금을 마구 거둬,
殃禍動輒臻.	재앙이 걸핏하면 닥친다.
人情各畏死,	사람이란 다 죽음을 두려워하니,
誰能坐捐身.	누가 앉아서 목숨을 희생하겠는가.

29) 劉基, 『春秋明經』, 『劉基集』, p.583.

30) 劉基, 『擬連珠』 제15수, 『劉基集』, p.196.

所以生念慮, 그래서 근심이 생겨나,  
 嘯聚依荊榛. 도둑 무리를 이뤄 악인에게 의지한다.  
 暴寡憚強梁, 약한 쪽을 괴롭히니 흉포한 이들을 두려워하고,  
 官政惟因循. 관리의 정치는 흉내를 낼 뿐이다.  
 將帥各有心, 장수는 각자 딴 마음 있어,  
 邈若越與秦. 서로 멀기가 월나라와 진나라 같다.  
 遷延相顧望, 후퇴하며 서로 두려워하고,  
 退托文移頻. 도망치며 어지러이 옮겨다니길 자주한다.  
 坐食挫戎機, 무위도식하며 전쟁에서 꺾여,  
 養虺變蛇鱗. 살모사가 뱀장어로 변한다.  
 遂令耕棄子, 마침내 농부들이 자식을 버리게 하고,  
 盡化為頑嚚. 모두 변하여 우매하고 간사해진다.  
 大權付非類, 권력을 지향점이 다른 이에게 맡기니,  
 重以貽笑顰. 거듭 무턱대고 따라한다.  
 鼠璞方取貴, 저급한 돌이 한창 귀한 대접 받고,  
 和璧非所珍. 화씨벽은 소중히 여겨지지 못한다.  
 但恐胥及溺, 다만 모두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이 두려워,  
 是用懷悲辛. 이에 마음이 비통하고 쓰라리다.

제 5수에서 유기는 시작 부분에서 古人들은 백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했지만 지금은 군대가 흉악한 세력이건 백성이건 가리지 않고 살육을 자행하는 풍토를 비판했다. 이어서 관리가 넘쳐나 국법을 희롱하고 노략질을 일삼는데다 세금을 무자비하게 징수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죽음에 두려운 백성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부득이하게 도둑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백성들이 자식을 버릴 정도로 극한 상황에 이르고 나날이 간사해져만 가는 것을 가감없이 묘사했다.

其六

五溪<sup>31)</sup>舊三苗<sup>32)</sup>, 오계는 옛 삼묘로,  
 蛇虺相雜處. 뱀과 지렁이가 서로 섞여 사는 곳이다.  
 其人近禽獸, 그 곳 사람은 금수에 가까워,  
 巢穴依險阻. 동굴에서 험한 길에 의지한다.

31) 五溪는 地名으로 雄溪, 湄溪, 無溪, 酉溪, 辰溪를 가리킨다. 일설에는 雄溪, 蒲溪, 酉溪, 沅溪, 辰溪를 가리킨다고도 한다. 漢나라 때 武陵郡에 속했으며 소수민족이 모여 살았던 곳이다. 지금의 湖南省 서부와 貴州省 동부에 해당한다.

32) 三苗는 중국 전설 속 黃帝부터 堯·舜·禹 시기까지의 옛 부락명이다. 三苗는 欢兜, 共工, 鯀과 함께 ‘四罪’라고 칭해졌다.

起居任情欲, 생활은 욕망을 따르고,  
 斗狠競爪距. 사납게 손톱 발톱으로 다툰다.  
 況能識君臣, 하물며 임금과 신하를 알겠는가,  
 且不顧子父. 아들과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다.  
 所以稱爲凶, 흉악하다 일컫는 이유는,  
 分北勞舜禹. 분리되어 순임금과 우임금을 수고롭게 해서라네.  
 先朝愼羈縻, 先帝는 속국의 회유와 견제에 신중했으며,  
 罔俾來中土. 중국에 오지 못하게 했다.  
 胡爲倏而至, 오랑캐가 갑자기 이르면,  
 馳驟如風雨. 비바람처럼 중횡무진한다.  
 見賊但越趨, 적을 보고도 그저 우물쭈물하니,  
 逢民輒俘虜. 백성과 만나면 바로 붙잡는다.  
 腰纏皆金銀, 몸에 지닌 것이 모두 금은이고,  
 衣被俱秀組. 옷은 모두 아름답게 짠 것이다.  
 所過惡少年, 지나가던 불량 소년이,  
 改服投其伍. 옷을 바꿔입고 그 무리에 투신한다.  
 農家劫掠盡, 농가는 약탈당함이 극에 달하니,  
 何人種禾黍. 누가 농사를 짓겠는가.  
 盜賊有根源, 도적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厥咎由官府. 그 잘못은 관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任將匪能賢, 임용되는 장군은 능력있는 현인이 아니니,  
 敗衄乃自取. 전쟁에 패하는 건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奇材何代無, 뛰어난 인재가 어느 시대에 없었던가,  
 推誠卽心膺. 진심으로 대하면 유능한 측근이 된다네.  
 誰哉倡此計, 누구인가 이 계책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延寇入堂宇. 외적을 끌어들이어 궁전에 들인다.  
 割鼻救眼睛, 코를 베어 눈을 구제하니,  
 於身竟奚補. 몸에서 결국 어찌 보충하겠는가.  
 浙西<sup>33)</sup>耕桑地, 절서 지역은 뽕 심은 땅에 농사지으니,  
 百載安生聚. 백년이라도 어찌 백성과 재산이 늘어나겠는가.  
 自從甲兵興, 전란이 일어나면서부터,  
 徵斂空軸杼. 세금 징수로 축과 베틀은 텅비었다.  
 疲氓眞可怜, 피폐한 백성은 정말 가련해,  
 忍令飼豺虎. 명령을 참고 승냥이와 호랑이를 먹인다.  
 追憶至元年, 원년을 추억해보니,

33) 浙西는 浙江省 중서부의 金華, 衢州, 嚴州 등의 지역을 가리킨다.



憂來傷肺腑. 근심이 와 폐부를 상하게 한다.

제 6수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다. 제 1구(‘五溪舊三苗’)~제 22구(‘何人種禾黍’)는 원나라 당시 ‘五溪’라 불린 곳에 살았던 소수민족이 중국에 침입해와 원나라 백성을 약탈하는 상황을 묘사했다.<sup>34)</sup> 이 중 제 19구와 제 20구 ‘지나가던 불량 소년이, 옷을 바꿔입고 그 무리에 투신(所過惡少年, 改服投其伍)’하는 것은 유기가 금수와도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오랑캐 무리마저도 입은 옷이 중국 백성이 입은 옷보다 훌륭하며, 이에 혹한 소년이 오랑캐 무리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통해 백성이 처해있는 참혹한 현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 23구(‘盜賊有根源’)~제 34구(‘百載安生聚’)는 당시 위정자들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도적이 생기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 그 잘못은 관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盜賊有根源, 厥咎由官府)’는 앞서 ‘(1) 관리부패’의 제 2수 관련 내용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官逼民反’을 강조한 것이다. 백성이 도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정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거듭 말하고 있다. 또 유능한 장군을 발탁하지 못하고, 외적을 궁전에 끌어들이는 등의 위정자의 거듭되는 실정을 비판하고 있다. 시의 마지막 부분 제 35구(‘自從甲兵興’)~제 40구(‘憂來傷肺腑’)는 전란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가혹한 세금 납부에 시달려 피폐해지는 상황과 이를 유기가 마음 아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其九

惟民食爲命,	오직 백성은 먹는 것을 천명으로 여기니,
王政之所先.	왕이 다스림에서 우선해야 하는 바다.
海澨實天物,	바다 소금은 사실 자연의 산물인데,
厥利何可專?	그 이익을 어찌 독점할 수 있겠는가?
貪臣務聚財,	탐욕스런 신하는 재물 모으는데 힘써,
張羅密於氈.	비단 펼친 것이 모직보다 뽁뽁하다.
厲禁及魚蝦,	생선과 새우 잡는 것 엄금하고,
鹵水不得煎.	소금물 줄일 수 없게 했다.
出門即陷阱,	문 나서면 함정이라,
舉足遭纏牽.	발을 내디디면 묶이고 끌려간다.
咆哮用鞭撻,	포효하며 채찍으로 매질하니,
冤痛聲相連.	원통한 소리가 서로 이어진다.
高牙開怨府,	관청은 원한의 발단이 되니,

34) 이 부분에서 유기는 소수민족을 오랑캐라 지칭하며 금수와 같이 미개한 종족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유기가 지닌 중국 중심의 중화사상의 발로라 여겨진다.

積貨重奸權. 재물 모으고 간사하고 권세있는 이 중시한다.  
 分攤算戶口, 호구를 세어 비용을 분담시키니,  
 滲漉盡微涓. 은택을 내리기에는 미미한 공적이 다했다.  
 官徵勢既迫, 관청의 징수가 급박하니,  
 私販理則然. 밀매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遂令無賴兒, 마침내 무뢰한으로 하여금,  
 睚眦操戈鋌. 눈을 부라리고 창을 잡게 한다.  
 出沒山谷里, 산골짜기에서 출몰하고,  
 陸梁江海邊. 강과 바닷가에서 창궐한다.  
 橫行荷簞籠, 삼태기와 대마구니를 메고 횡행하며,  
 方駕列船舷. 건주며 뱃전을 찢는다.  
 拒捕斥後懦, 체포될까 도피하며 내쫓긴 후엔 비겁해지고,  
 爭彊夸直前. 싸워 강자가 되면 뽐내며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  
 盜賊由此起, 도적이 이로부터 일어나,  
 狼藉成蔓延. 여기저기서 어지러이 번져 퍼진다.  
 先王務廣德, 선왕은 덕을 널리 하는데 힘썼으니,  
 如川出深淵. 시냇물이 깊은 연못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外本而內末, 밖으로는 근본을 닦고 안으로는 지엽적인 것에 힘써,  
 民俗隨之遷. 풍속이 이에 따라 옮겨갔다.  
 自從甲兵興, 전란이 일어난지,  
 奄忽五六年. 쏜살같이 오육년이 되었다.  
 借籌討得喪, 다른 사람을 위해 도모함에 득실을 따지니,  
 耗費倍萬千. 정력이 소모됨이 천만배다.  
 回憶至元初, 원왕조 초기를 회상해보면,  
 禁網疏且平. 금지령이 그물망같아 성기면서도 편안했다.  
 家家有衣食, 집집마다 옷과 음식이 있었으며,  
 畏刑思保全. 형벌을 두려워해 보존하는 것을 생각했다.  
 後來法轉細, 뒤에 법이 더욱 세밀해져,  
 百體皆拘攣. 모든 것이 다 구속받는다.  
 厚利入私家, 두터운 이익이 사사로운 곳으로 돌아가고,  
 官府任其愆. 관부는 그 잘못을 내버려 둔다.  
 大哉乃祖訓, 위대한 것이 조상의 법도라,  
 典章尚流傳. 법령이 아직도 전해내려 온다.  
 有舉斯可復, 시행하면 이는 회복될 수 있으니,  
 庶用康迤邐. 백성이 풍요로워져 반란에 나아가지 않으리.

제 9수에서도 유기는 원말 백성들이 피폐해진 원인과 그 구체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첫 두 구에서 유기는 “오직 백성은 먹는 것을 천명으로 여기니, 왕의 다스림에서 우선해야 하는 바다(惟民食爲命, 王政之所先)”라며 왕은 백성의 먹는 문제 즉 생계를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 소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어서 당시에 국가가 소금, 수산물 등의 자원을 독점해서 백성의 생계수단을 단절시키는 것은 백성에게서 생업을 빼앗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1353년(元 至正 13년)에 일어난 張士誠의 난은 염민의 폭동으로 장사성이 염민이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시에서 유기는 또 관청의 모진 협박과 가혹한 세금 징수가 백성으로 하여금 밀매를 하게 하고 결국 도적이 일어나게 하는(‘官逼民反’) 원인이 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시의 후반부인 제 29구(‘先王務廣德’)부터는 원왕조 초기의 덕치와 원말의 잘못된 정치를 대비시켜 이에 따라 달라지는 백성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즉 이 시에서 유기는 천하대란이 온 근본 원인을 집정자가 ‘덕으로써 백성을 보살피지(以德養民)’ 못해서라 보고 있으며 ‘백성을 지켜 왕노릇을 하는(保民而王)’ 유가의 기본 통치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感時述事十首」에서 유기는 원말의 사회문제들에 대해 각 분야별로 자세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를 통해 그가 당시 사회에 갖고 있었던 비판의식을 알 수 있었다. 이전의 풍유시가 주로 백성의 고통을 표현함으로써 조정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면 본고에서 살펴본 「感時述事十首」는 직접적으로 조정의 잘못을 의론하고 있다. 유가의 전통적인 시교관이 ‘溫柔敦厚’를 중시해 넉넉히 조정의 잘못을 표현했던 것과는 그 표현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나오며

유기 생애에서 시가 창작의 절정기는 원말 1353년(至正 13년)부터 1360년(至正 20년)까지의 7, 8년간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유기가 방국진을 체포하자고 건의했다가 파직(1353년, 至正 13년)된 후부터 주원장에게 초빙되기(1360년, 至正 20년) 전까지로, 이 때 쓴 작품들에는 원왕조에 충성했지만 버려진 데 대한 원망으로 인해 격분의 감정이 가득하며 시가의 풍격도 雄建하면서 悲壯한 특징을 가진다. 본고에서 고찰한 「感時述事十首」는 바로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1358년(元 至正 18년)에 창작된 「感時述事十首」는 현실참여적인 유기의 전기시의 주요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유기는 이 연작시에서 직접 목도한 원말의 혼란한

상황과 백성들의 고통을 생생하게 담았다. 그는 원말 至正연간의 관리부패, 군대적폐, 황제무능, 화폐남발 등의 여러 사회폐단에 대해 비판하고, 이런 폐단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는 宋詩의 ‘의론으로 시를 쓰는(以議論爲詩)’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학은 세상에 쓰임이 있어야 한다는 經世致用의 유가적 문학관점의 발로라 할 수 있다.

「感時述事十首」는 다음과 같은 문학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첫째, 문학사적인 면에서 보면 원말의 纖弱한 시풍과 개인화된 시풍이 유행하던 시단에서 유기는 나라와 백성이 처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비판을 통해 당시 시단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이다. 그는 「感時述事十首」에서 원말의 사회현실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理’)을 함과 동시에 위정자에 대해 분노하고 백성의 고통에 대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情’). 즉 유기는 理와 情이 결합된 표현수법으로 원말의 사회현실을 문학적으로 훌륭하게 형상화시켜 史詩로 완성시켰다. 이는 두보가 「北征」, 「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 등의 시에서 안사의 난 전후의 당나라 현실을 개인적 경험과 결합시켜 沈鬱悲壯한 풍격으로 표현했던 것과 그 맥이 닿아 있다. 둘째, 유기의 시가연구 면에서 본다면 전후기로 구별될 수 있는 그의 시가 중 전기시의 한 경향, 즉 원말 사회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현실참여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유기가 이후 주원장의 謀臣으로 초빙되면서 명왕조 건국 이후에 이르기까지 창작한 시는 현실참여보다는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거나 현실에 대해 회피하는 경향을 띠게 되어 내용과 풍격면에서 전기시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유기의 후기시 창작경향을 살펴보는 작업은 이후의 연구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徐連達·吳浩坤·趙克堯 지음, 중국사연구회 옮김, 『중국통사』, 청년사, 1990.

傅衣凌 主編 楊國楨·陳支平 著, 『明史新編』, 人民出版社, 1993.

劉基 著, 林家驪 點校, 『劉基集』, 浙江古籍出版社, 1999.

呂立漢, 『劉基考論』, 中州古籍出版社, 2000.

錢謙益 撰, 『列朝詩集小傳』, 臺灣: 世界書局, 1965.

沈德潛 編, 『明詩別裁集』, 上海古籍出版社, 2008.

### <논문>

서 성, 「살도랄(薩都刺)」, 『중국문학이론』, 제11·12합집, 중국문학이론학회, 2009.

홍혜진, 「고계시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00.

都玉曉, 「明代開國元勳劉基的人生悲劇探因」, 『領導科學』, 2018.06.

呂立漢, 「劉基論」, 『文學評論』, 第5期, 1999.09.

\_\_\_\_\_, 「試論劉基的文學思想」, 『浙江社會科學』, 第6期, 1999.11.

\_\_\_\_\_, 「論劉基以詩議政的創作傾向」, 『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 第22卷 第1期, 2000.02.

\_\_\_\_\_, 「劉基詩歌的表現手法和風格特徵」, 『麗水學院學報』, 第29卷 第6期, 2007.12.

洪永鏗, 「劉基“諷諭詩”初探——兼與高啟“自適詩”比較」, 『中國文學研究』, 第3期, 2006.09.

馮仙麗, 「劉基詩歌的悲劇意識」, 『浙江工貿職業技術學院學報』, 第4卷 第3期, 2004.09.

周松芳, 「允爲明代之冠——論劉基詩歌創作蒼深的特徵及其表現」, 『浙江工貿職業技術學院學報』, 第4卷 第2期, 2004.06.

左東嶺, 「論劉基詩學思想的演變」, 『文學評論』, 第5期, 2010.09.

顧瑞雪, 「劉基詩歌研究」, 湖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5.

梁 慧, 「元代官制中的世襲和蔭敍」, 西北師範大學 碩士論文, 2009..

苗 民, 「劉基入明後詩學思想研究」, 首都師範大學 碩士論文, 2008.

潘巖偉, 「論劉基的儒學思想及其文學創作」, 湖北大學 碩士論文, 2012.

孫彥忠, 「劉基詩研究」, 河北大學 碩士論文, 2008.

##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劉基, 感時述事十首, 諷諭詩, 元末, 社會批判意識				
	영문	Liu Ji, Ganshishushishishou, Allegory poem, End of Yuan Dynasty, Social criticism				
<div>A Study on Social Criticism Shown in Liu Ji's 「Ganshishushishishou」</div> <div>Shin Min-Ya</div> <p>Liu Ji(1311~1375) is a politician, military expert, thinker, and writer in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nd the beginning of the Ming Dynasty. Liu Ji lived in the period when the Yuan Dynasty was changed to the Ming Dynasty, so his life and literature were also deeply influenced by it. Liu Ji left about 1,300 poems, and most of his poems could be divided into the former and latter periods on the basis of 1360(20th year of Zhizheng), the next year when he was invited by Zhu Yuanzhang. His poems in the former period regarded the social criticism, allegory, and edification as important while his poems in the latter period tended to mainly show the description of personal emotions. As a set of poems created in 1358 when Liu Ji was 48 years old, 「Ganshishushishishou」 fully shows the main tendency of his poems in the former period when he paid attention to the reality of society. Liu Ji who spent most of his life under the Yuan Dynasty witnessed the people's pains and chaotic situations in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nd then vividly contained them in 「Ganshishushishishou(感時述事十首)」. In 「Ganshishushishishou」, Liu Ji criticized many social evils such as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military deep-rooted evils, incompetent emperor, and overissue of money during the years of Zhizheng in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nd also fully showed the people's lives suffering from such evils. This was not only to inherit the tradition of 'taking discussion as poetry' of Song poetry, but also to express his own Confucian literary perspective on practical use of literature in the world.</p>						
저 자	신민야 / 申旻也 / Shin Min-Ya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2.02.04.	심 사 일	2022.02.23.	게재확정일	2022.03.11.